

무주 맞춤형 이동 서비스

안전귀가 통학택시·장애인 콜택시 호응

무주군이 '안전귀가 통학택시와 장애인 콜택시' 등 택시를 이용한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사업비 1억 5천여만 원이 투입되는 안전귀가 통학택시는 야간 자율 학습 후 귀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운행하는 것으로, 관내 10개 중·고등학교 학생 120명(학교별 신청자)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6일 군에 따르면 안전귀가 통학택시는 2015년 운행(민선 6기 공약)을 시작했으며 월 평균 1백여명이 이용했다.

통학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한 번 탈 때 500원만 내면 안전하게 집에 갈 수가 있다"며 "버스 끝길까 봐 걱정 안 해도 되고 부모님들도 안 심하신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관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종사자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해 이용 금액(미터기 적용)의 차액 분을 지원하며, 업체에서는 안전운행과 더불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한편, 장애인 콜택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근거)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무주군이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무주군지회에 위탁 운영하는 것

으로 사업비 8600만원이 투입된다.

예약제로 운행(하루 전 또는 상황에 따라 바로 콜)하며 관내에 거주하는 1~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모두 기본요금 1400원에(143m당 30원 추가) 이용 가능하다.

이용 주민들은 "예약만 하면 집 앞까지 와서 데려다 주니까 병원도 가고 시장도 가고 편하다"라며 "무엇보다도 차비 부담이 크지 않아서 좋다"고 말했다.

김기범 군 건설교통과 교통담당은 "통학택시와 장애인 콜택시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것"이라며 "이용객들뿐만 아니라 택사업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보람이 크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다문화지원 이용대상·서비스 확대

무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무주군수 관사로 쓰던 공간을 민선 6기 들어 다문화가족 관련 시설로 활용 전환해 화제가 됐던 무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장진원)가 군내 유일 가족전문 통합지원기관으로 거듭났다.

지난 6일 군에 따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정책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2009년 2월 문을 열었으며 이용 대상은 다문화가족들로 한정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웃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은 물론, 서비스와 접근성 모두를 확대해 기대를 키우고 있다. 무주군은 지역여건과 정책,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가족생활 이해증진 및 관계

개선을 위해 가족 역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관계향상 및 자녀성장 지원, 가족상담, 가족역량강화 및 자녀 돌봄 지원을 하게 된다.

또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를 진행하며,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가족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가족친화분위기 조성한다.

강미경 사회복지과 여성복지 담당은 "다문화가족만이 누릴 수 있었던 복지서비스를 지역의 모든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새롭게 태어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왕대·농원마을 등 15개소 선정... 최대 240만원 마을별로 지원

장수군은 급식 준비로 인한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연중 40일 이내의 기간에 부식비와 조리사 인건비를 포함한 최대 240만원을 마을별로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마을회관을 포함한 마을 공동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급식 인원이 20명 이상인 마을이며, 또한 한 번이라도 사업의 수혜를 받은 마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장수읍 왕대, 농원마을 등 15개소 선정하여 총 3,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전년도 11개 마을에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64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역대 최고인 33개 마을이 신청하여 농번기 마을 인력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공동급식 지원으로 식사하는 장수 갈평마을 어르신들

이올러 올해부터는 마을별 고령화 지수 사업 선정 지표에 포함하여 고령화지수가 높은 마을에 사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에 따른 일손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군 관계자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이 농번기에 여러 음식을 준비하는데 드는 수고로움과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내년에는 더 많은 마을에게 지원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전기자동차 7대 보조금 지원

23일까지 신청접수... 선착순

진안군은 지난 6일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기자동차 7대를 민간인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며, 초기 구매비용을 덜어주고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 1,800만원부터 최저 700만원까지 차등 보

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현재 진안군에 2년 전부터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국민·법인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로 구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전기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희망차종을 신청하면 된다.

진안군은 사회취약계층과 차량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한 1, 2차 공고와는 다르게 지원기준을 선착순 접수에 따라 선정기로 했으며, 자세한 지원방법과 신청서류는 진안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관내·외 고교생 학자금 모두 지원

하반기 예산편성 통해 지원

진안군은 지난 6일 진안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한 진안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외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관내 학부모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하여 교육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내·관외 고등학생 학자금 모두 지원 사업은 간담회를 통해 관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증가에 따른 고충과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실현한 것으로 의미가 더 크다.

특히 제도 마련을 위해 지난해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6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 결과 '변경보완' 요청에 불수용하여 재검토를 요청한 결과 2018년 3월 '동의'를 이끌어 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고교 무상교육 2020년 단계적 시행에서 2022년 전국 확대한다는 방침보다 2년여 앞서 도입하는 것으로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진안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동의'가 늦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2018년 하반기 예산편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며, 각종 학자금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군, 'K-Festival' 서 관광홍보

장수군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간 서울 여의도 국회관리 축구장에서 열린 'K-Festival 2018, 파이팅 코리아 내 고향 페스티벌' (이하 K-Festival)에 참가해 장수군의 다양한 관광지와 특산물, 축제 등을 홍보했다.

군은 장수 농특산물(사과즙, 오미자청) 시식행사, SNS 이벤트, 도깨비캐릭터 만들기 체험 등을 실시했다.

특히 대표 관광지인 논개사당, 뽕샘생태관광지, 대곡관광지,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등의 관광코스를 전북투어패스와 연계하여 소개했다.

또한 '제12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2018.9.14.~9.16.)' 홍보에도 전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백경태 무주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백경태 무주군수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사진)가 지난 6일 무주읍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지지세 확산에 나섰다.

백 예비후보는 이날 800여 주민과 지지자들 앞에서 "경청과 소통으로 새로운 무주를 만들겠다"며 "정당당당하고 깨끗한 선거로 승리"를 다짐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 역량을 바탕으로 무주군민을 위한 큰 일꾼이 되어주길 당부한다"는 축전을 보내왔다.

개소식을 통해 백 예비후보는 △65세 이상 노인과 만 6세 이하 아동들에게 무상으로 서비스 도입 △농산물 원스톱 판매시스템과 판매장 개설 △15.5원의 지역적 먹거리 특화거리 등 통합적 관광패키지 개발 △유아·아동 전용 도서관 및 트래픽센터(바운스) 키즈 파크 조성 △찾아가는 생활복지관 시스템 도입 △청년과 전문가로 구성된 창업·일자리 지원 전담 TF팀 구성 등 무주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는 9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를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반을 운용한다.

이번 단속은 관내(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모집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행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무단 반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